아프리카 경제통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 지역적 국제가구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

박기갑

이 연구논문은 탈식민지화 이후인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 상호간에 형성한 각종 지역적 경제통합운동을 개관 및 평가하고, 장래 새로운 아프리카 전체 차원의 경제통합운동을 전망하기 위해 쓰여졌다.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적 경제통합운동에 대해서는 북부, 서부, 중부, 동부 및 남부지역이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각 운동의 초기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수록 상대적 우위요소가 가진 중심국이 출현했다는 점, 2) 다양한 경제통합운동에도 불구하고 역대 교역동의 결과는 여전히 요인에 의해 미치는다는 점, 그리고 3) 동시대의 지역적 경제통합운동이 방향한으로서 복합적임의 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장래 새로운 아프리카 경제통합운동으로서 1991년 OAU에 의해 그 모습을 드러낸 AEC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아프리카 전체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점진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하며, 2) 구체적인 계획표를 가진 기존 지역적 경제통합의 상위 기구로서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결론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운동의 부진한 이유분석과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참여하는 국가의 정치적 적극성을 여부와 적절한 통합전략의 수립을 지적하였다.

I. 서론

전세계는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구조적인 분위기와 실업의 재통일로 인해 상정되는 이데올로기 대립구도의 소멸과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의 발호로 말미암은 국가정이 전개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기주의는 새로운 경제전쟁으로 치닫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아프리카대륙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가령 지난 94년 4월초 시작된 루완다의 내전, 소말리아의 내전, 그리고 아프리카 최대국 중의 하나인 나이지리아의 분규, 그리고 알제리에서는 희교원리주의자들의 거센 음직임으로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 운동을 살펴보는 실익은 피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식민지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생국

* 이 글은 교육부의 93년도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돌이 성립되고 난 후에도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도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바로 그 때문에 복잡한 정치적 분쟁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아프리카 대륙의 몽골말이 지역적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곧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이겠다.

이 연구논문의 목적은 아프리카 대륙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요 지역적 경제통합 익직임을 개괄하여 살펴보고, 그 시행착오를 검토하여 국외자적 입장에서 장래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서론부분에서는 이 논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아프리카의 제반 환경을 언급한다.

1. 주요 용어 개념정의

이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주의(regionalisme)

국가간 경제관계의 장벽을 철해하는데 있어 지역적 인접성, 공동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길밀도등에서 이해를 같이 하는 특정국가들끼리 자유, 무차별 원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경제상의 흐름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려는 GATT의 다자간주의(mulilateralism) 내지는 국제주의(globalism)에 상반되는 개념이다(산업연구원, 1989:1).

2) 지역적 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20세기 중반이후 국제경제와 국제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음직임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경제통합음직임은 다양한 의미를 띄고 있다. 이 개념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 관세동맹(customs unions), 공동시장(common markets), 경제동맹(economic unions 또는 federations)등과 같은 여러 형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내가지 형태는 둘로 갈수록 점점 통합의 높은 단계를 의미한다. 이들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Carreay et al., 1990:66-67).

- 자유무역지대: 회원국간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와 양적 제한조치가 철폐되지만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관세권을 가진다.

1) 경제통합의 제반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국제사무처, 1989:9-33; 김기환, 71; Robson, 1968:11; Coussy & Hugon, 1991:32)
이의 경제통합형태중 가장 초보적 단계로서 EFTA(Е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이 대표적인 예이다.
- 관세동맹: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동일관세체제를 유
지한다. 벨기에, 록셈부르크, 네덜란드가 결성했던 Benelux가 이에 해당한다.
- 공동시장: 더욱 발전된 형태로서 자유무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간 생
산품의 자유이동을 막는 모든 또는 일정한 요인을 제거한다.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이에 해당한다.
- 경제동맹: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재정, 통화와 다른 경제정책수단이 조율되거나 
단일화된다. 유럽동맹(EU)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경제통합형태는 그 결속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공통
점을 갖는다. 첫째, 독립된 국가상호간에 교역장비요인을 제거하든지 현격히 완화시킴
으로써 그들간의 교역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합과 동시에 둔, 비회원국에 대한 차
별주의를 철회한다(Robson, 1968:25).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진행중인 지역적 경제통합적임은 위 네가지 형태중 어느 과
정에 속하며 또한 어떠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움직
임의 명칭과 관계없이 성격적으로 단순한 ‘지역적 경제협력(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에 불과한가 아니면 진정한 통합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
는 지역적 경제협력이란 참여하는 회원국의 주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만장일치로서 운영된다. 이러한 점은 대한 대담은 이 논문의 마지막에
서 도색될 것이다. 참고로 이런 학자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회원국이 정치적 독립성을 
계속 유지한 채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완성시키며, 회원국들은 공동판세체제, 사람과 상
품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시장형성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
다. 그 이유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가 추구해 온 바와 일맥상통하기 때문
이다(Johnson, 1991:2). 어쨌든 이 글에서는 ‘통합’이란 표현을 편의상 모든 형태를 포
괄하는 광범의 의미로 사용한다.

2. 아프리카의 제반환경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적 경제통합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다. 이
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양적 팽창과 질적 변론’이다. 즉 ‘양적 팽창’이 지역적 경제
통합적임을 공정적인 측면에서 지극하는 요인이라면 ‘질적 변론’은 반대로 부정적 측
면에서 지극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1) 양적 평창


2) P.J.Owuka & T.M.Shaw(ed), Africa in world Politics: into the 1990s, p.33.
3) 빈곤 인구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사막 남부지역 아프리카는 반성적 인구부족을 보이고 있다. 1992년 통계로 전체인구는 5억 5천만명인데 46개국중 단지 6개국만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즉 나이지리아(1억 1500만명으로 총인구 20%), 이디오피아(5100만), 케냐와 탄자니아(각각 2600만명), 남아프리카공화국(3800만명), 자이레(3700만명)등이다. 위의 5개국은 영어권으로 사하라사막 남부지역 충구인의 결번을 차지한다. 나머지 40개국은 모두 1800만명 이하의 인구이다. 이 중 23명 33개국은 천만명을 넘지 못한다. 더욱이 1/3에 해당하는 14개국은 2백만명도 되지 않는다. 인구의 대부분은 유아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성적 노동력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 제다가 전염병의 만연과 계속되는 전쟁으로 매파엄아 필요한 노동력은 더욱 부족하다. 자료: le Monde Diplomatique, 1993년 5월호, p.19
아프리카 경제통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화한다"라고 명시하여 경제통합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역시 1974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의무에 관한 헌장’ 제 12조에서도 “국가들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관련국가와의 협의하에 지역상호간, 지역간 및 하부지역간 협력을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비록 권고안으로서 법적 의무감을 갖지는 않지만 앞의 결의안 내용보다 권리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2) 절적 빈곤


아프리카 전역의 외채부담을 증가하는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체 지구상의 교역량

5) 1974년 5월 1일 UN총회에서 채택된 "Résolution 3202 (S-VI) Programme d’action concernant l’instauration d’un Nouvel Ordre Ecomomique International", in Droit et relations internationales, 1984, p.560.

6) 1974년 12월 12일 UN총회에서 채택된 "Résolution 3281 (XXIX) Charte des droits et devoirs économiques des Etats", ibid., p.571.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즉 1970년에 7.6%에서 1985년에는 3.8%로 거의 반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 참고로 남미체국은 15.6%로 안정적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은 6.6%에서 9.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Ibid:32).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를 보면 나이지리아, 코트디브와르, 자이레, 콩고프레지에, 이디오피아, 모리셔스, 수단 등으로 별로 많지 않다. 다음으로 주된 수출품목인 원자재가격의 하락도 주된 요인이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의 주된 수출품목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우기 한가지 품목에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의존하고 있다. 가령 커피가 코트디브와르와 캐나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4-6년도에 각각 60%와 31%로 나타나 있으며, 카카오가 가나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년도에 73%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격의 하락은 국가적 차원의 수입감소로 직접된다. 그리고 수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로 인한 득실을 빠져볼 때 동일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손해를 보리라는 추세가 강하다(Ibid:36). 따라서 외채상환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지역적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II. 아프리카의 기존 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났던 국가간 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임은 수없이 많다. 이들을 모두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 Chamrousseau 교수의 저작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아프리카에는 안정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아니한 것, 효율적인 기관이 이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 실질적 참여 없이 정치적 능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것 등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이다.8)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상호간의 주요 움직임에 대해 살펴본다.9)

1. 개관


한편 아프리카의 지역경제통합조직은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외에도 파거 식민지세력에 따라 분어진(서부 아프리카지역), 영어권(동부 아프리카지역), 그리고 포르투갈어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도 광활한 아프리카대륙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하라사막 북부지역과 사하라사막 남부지역으로 우선 크게 나누고, 후지를 서부, 동부, 남부, 중부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도 있다. OAU 역시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region)”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논문도 지역별 분류방식을 따라 각 지역별로 주요 경제통합기구를 1) 개관 2) 명칭 및 설립조약, 3) 회원국, 4) 설립목적, 5) 주요기관, 6) 주요활동 등의 순서로 살펴본다.

---


2. 북부 아프리카 지역


3) 회원국: 모로코, 모리타니아,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4) 설립목적: 경제통합과 재정(금융)조정을 통한 회원국간 공동구조를 형성하며,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경없는 북아프리카지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다.

5) 주요기관: UMA는 정치적 결정기관,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을 갖고 있다. 우선 각 회원국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이사회 (Conseil de la Présidence)와 그 밑으로 외무장관회의(Conseil des ministres des affaires étrangères), 특별장관위원회(Commissions ministérielles spécialisées), 그리고 이사회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이 있다. 관련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5개 분과위원회가 1988년 6월 13-14일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재정 관세분야 위원회, 경제정책 분야위원회, 교육, 문화 및 정보분야 위원회, 사회 및 공공분제분야 위원회, 그리고 기관 및 구조분제분야 위원회등이 있다(Blaid, 1991:131; Balta & Rullear, 1990: 244-247) 이 외에도 각종 구체적 의견 및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자문위원회와 사법재판소가 있다. 제반소는 맡겨진 사안에 따라 강제력있는 최종 확정판결 또는 권 고적 의견을 낼다.

6) 최근활동상황: 1993년초 북아프리카동맹 회원국은 4개의 농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물자원개발과 환경과 관련된 조약의 내용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

12) 이 조약의 요지는 이 논문의 부록 참조.
로 볼 때 북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은 기존의 양자간 관계에서 벗어나 다자간 조율 및 지 역통합을 통한 장래 상호관계개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서부 아프리카 지역

1) 개관: 이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통합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다양한 지역적 경제기구들이 병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아프리카 국가간 경제협력이 일찍부터 발생하였으며, 그 후 영어권과의 제휴가 이루어졌다. 이하 몇몇 주요한 지역적 경제통합운동임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적 경제기구들을 살펴본다.

2) 서부 아프리카계약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⑬

① 설립조약: 1975년 5월 25일 체택된 라고스조약(Treaty of Lagos)이며, 14개 65조로 구성되어 있다.⑭

② 회원국: 현재 16개국으로 가나, 감비아, 가네비소, 기니, 가봉베르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도고.

③ 설립목적: 설립헌장 제 2조 1항에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회원국간의 유대강화, 아프리카대륙의 발전을 위해 공업, 운송, 통신, 에너지, 자원, 교역, 통화 및 금융문제, 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과 상호간의 협력”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서 역내주의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본 및 서비스의 이동의 자유화, 농업개발사업의 공동추진, 회원국간 경제정책의 협력 및 균형된 경제발전의 도모, 통화정책의 통일, 역내판세 및 수량규제의 철폐, 역외 공동관세 및 공동무역정책의 수립, 보상 및 발전기금의 조성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ECOWAS는 역내국가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역내경제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EC와 같은 역내공동시장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④ 주요기관: 우선 최고외교기관으로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회의(Authority of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가 있다. 이 기관은 회원국의 정상들로 구성되며,

---


매년 5월에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음 가로이사회(Council of Ministers)가 있다. 이 기관은 각 회원국에서 2명씩 선임된 총 32명으로 구성되며, 년 2회의 정기회의를 열다. 주요 임무로는 효율적 정책수립과 기구의 활동을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관으로서 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을 둔다. 이 기관은 정상회의에서 임명하는 1명의 사무총장과 각료회의에서 임명하는 2명의 부사무총장 및 사무관으로 구성되어 관련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가로이사회의 제출하는 것을 주관 임무로 한다. 끝으로 회원국간 분쟁발생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재기구로서의 공동체재판소(Tribunal of Community)가 있다. 아울러 이외에도 4개의 전문위원회(Technical and Specialized Commissions)가 설치되어있는 바, 무역, 관세, 이민, 금융 및 자본위원회; 공업, 농업 및 천연자원위원회; 교통, 통신 및 에너지위원회; 사회 및 문화위원회이다. 한편 설립조약 제 11장에 명시되어 있는 EcowAS기금(Fund for Cooperation, Compensation and Development)은 비한국 회원국의 개발계획사업 및 개발금에 대한 평가와, 회원국의 기업기술이나 무역자유화로 인한 손실보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증, 역내 예금 및 대출을 위한 중앙기금으로써의 역할을 한다.(Okolo, 1989:122-23).


6) 평가 및 문제점: 지금까지의 활동을 종결 볼 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현상이 EcowAS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역내고민의 자유로운 이동으로서 ‘EcowAS Travel Certificate’라고 불리는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통화정착계획의 추진이다. 이는 이 지역의 통화부분의 협력을 위해 설치된 기존의 West African Clearing House(WACH)가 West African Monetary Agency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 및 통화통합 및 자본부문에서 더욱 많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회원국내 상수도의 확충, 해상수송의 확대 및 통신판의 확대등의 추진을 들 수 있다.16)

이처럼 EcowAS는 관련 지역의 산업화를 최대목표로 설정하는 경제적 기구로서 아


2)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AO)17

① 설립조약: 1973년 4월 아비잔(Abidjan, 코트디브와르)에서 체결된 조약
② 회원국: 7개국으로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코트 디브와르.

③ 설립목적 및 추진현황: 서부아프리카의 불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역내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경제협력기구로서 교역부문에서는 비공산품 역내판매결제, 비공산품교역 특혜제도 교역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공업개발사업 및 경제통합계획을 추진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보장, 경제개발등에 관한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란 대외공동관계는 아직 체계하지 않고 있다.

3) 서부아프리카 통화동맹(UMOA, Union monétaire ouest-africaine)

① 설립조약: 1962년 5월 체결되어 동년 11월 1일부터 효력발생된 파리조약
② 회원국: 니제르, 말리(말리는 1962년에 독자적 국내통화를 고집하여 탈퇴하였다

17) CEAO는 Communauté économique de l’Afrique de l’ouest(영어로는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의 약자이다.
가 80년대 중반에 제카입합), 모리타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코트디부르.


4) 서부아프리카 관세동맹(West African Customs Union)

1966년 6월에 채택되고 동년 12월에 발효된 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약은 1959년 다 호메이(현 재배 베냉), 코트디부르,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세네갈과 상부볼타(현재 부르키나파소)간에 형성되었던 관세동맹을 대체하였다. 18) 1959년에 형성된 동맹의 목적은 독립이전에 존재했던 관리를 계속 이어가는 데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회원국 간 무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동관 세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1959년 조약은 회원국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66년 조약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해서는 공동관세를 설정하고, 내부교역에 대해서는 외부공동관세의 50%선에서 책임자, 기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제외적으로 70%까지 인상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회원국 상호간 자유로운 물품이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율성은 의문이다. 19)

5) 서부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활동의 전반적 평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부 아프리카지역은 경제통합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많은 경제협력기구들이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 기존의 통합운동과 새로운 통합운동이 중복되어 있는 현상, 특히 ECOWAS와 CEAO의 양립을 두고 각각의 평가가 다르다. 20) 아울러 서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호간 또는 역외 국가들과 양자-다자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간의 복잡한 관계의 상호절충 역시 앞으로의 통합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령 감비아, 가나, 나이제 리아와 세네갈은 영연방의 회원국이며, 불어권 국가들은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AO), 서부아프리카 통화동맹(UOMA), 세네갈강 개발기구(OMVS)등에 가입하고

18) 1959년 관세동맹에 관해서는(Robson, 1968:16-17) 참조.
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가니, 시에라리온은 마노강동맹(Mano River Union)에 속해 있으며, 끝으로 모리타니아는 새로운 북아프리카동맹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4. 중부 아프리카 지역

1) 중부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 (UDEAC) 21)


② 회원국: 1993년 현재 6개국으로 카메룬, 콩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가봉, 차드, 적도가네이다.

③ 설립목적: 회원국간 경제협력과 무역증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정점해 지역경제통합체로서 중부 아프리카 공동시장을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으로써 관세동맹, 주요공업계획사업의 추진, 투자정책을 위한 공동법전 제정, 공동조세체계의 정비, 공동단결기금의 조성 및 역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④ 활동: UDEAC는 UDE가 추구해왔던 기존의 정책에 덧붙여서 수입세 및 관세품목의 통일, UDEAC구역내에 공동관세사무소의 설치, 투자코드의 통일, 내교세 및 국내발전계획의 조화를 택하였다. 회원국 상호간에 특별한 자유무역정책과 단일관세를 적용해 오고 있으며, 역내간에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입과정금을 통일시키고 있다. 23) 아울러 중앙아프리카제국은행(BEAC: Banque des Etats de l’

21) UDEAC는 Union douanière et économique de l’Afrique centrale(영어로는 Central African Customs and Economic Union)의 약자이다.


5) 문제점: 운송, 통신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와 각 회원국의 관세율 조정의 부진으로 발미야마 교역증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내 경제발 전계획이나 콩고, 가봉, 카메룬에만 집중되어 있어 내륙국인 중앙아프리카와 차드의 반 백을 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경제협력으로 얻어지는 이 익과 혜택의 균형적 배분이 원전으로 등장한다.

2) 중앙아프리카 국가동맹(Union of Central African States)

1968년 2월 Bangui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가 중앙아프리카 국가동맹을 형성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점진적인 공동시장형성, 산업계획의 회원 국간 형평스런 배분, 내륙국의 이익보존 및 발전, 그리고 투자운영등을 명기하고 있다. 이 기구의 출범은 앞에서 설명한 UDEAC를 탈퇴한 내륙국들의 참여 및 그들의 불만이 거의 수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UDEAC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 내면이 갈려있 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UDEAC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 기구의 존속은 불투명하다.

3)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EAC: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이 기구는 1983년 조약으로 창설되어 1993년 1월 현재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가봉, 적도기니, 루안다, 샹토 메프릴시페(Sao Tome and Principe), 차드, 자이레 등이 참여하여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4) 이들 선언은 196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그후 계속 UDEAC에 찬류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차드 역시 1983년에 복귀하였다.
25) Bahram Nowzad, op cit., p.211.
5. 동부 아프리카 지역

1)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26)

1967년 6월 케냐, 우간다와 탄자니아간에 체결된 동부아프리카 협력조약 (Treaty for East African Cooperation)으로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역내무역의 관세면제, 대외공동관세의 설정, 공동통화, 소비세 및 소득세의 통일, 철도, 도로, 금전협회, 항만협정 및 항공운송의 공동운영, 자연 및 노동이동의 자유, 조사통계자료의 통일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시장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역내통합으 로 인한 이익배분의 불균형에 대한 회원국간의 불화, 기구조직의 허술함 및 회원국의 정치적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성된 지 10년만인 1977년 해체되었다. 이후 이 공동체에 관여했던 세 국가 모두 아래에 설명하는 PTA에 가입하고 있다.

2) 동남부 아프리카 특혜무역지대 (PTA : 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


② 회원국: PTA에는 1993년 현재 총 1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국의 총인구는 약 2억 6천만명으로 아프리카 제 1의 무역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앙골라, 루안다, 부룬디,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레소토, 코모로, 모리시어스(Mauritius), 수단, 지부티, 나미비아 등

이다.

③ 설립목적: 역내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시킴으로써 상호교역촉진과 경제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선진국가에 대한 경제의존탈피와 역내경제의 자립화 실험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④ 주요기구: 최고기관인 정상회의, 집행기관인 각료이사회 및 사무국, 6개 기술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⑤ 최근활동: PTA의 역사는 다른 지역적 경제통합을적임에 비해 짧으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역내 관세율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내교역자유화의 추진을 통해 유럽공동체와 같은 공동시장의 신탁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내 회원국간의 양자협력관계 개선, 수송망 확보, 인적자원개발등을 구체적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다(박영탁·정영태, 1991:5-69). PTA는 회원국간의 경제력 상이, 교역품목의 분포 및 회원국간의 이해와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세제도의 실시, PTA 여행자수표의 사용등 많은 분야에서 난항을 계속하여 당초 숙원인 역내공동시장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역내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철강, 비료의 공동생산계획을 세계 온행의 자권지원하에 추진중에 있으며, 1989년 회의에서는 공동금속연구소의 설치 등을 결의한 점과 세계적 지역경제발전화 추세에 비추어 PTA 역내국가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역내관세율인하에 관해서는 1984년 자국민지분율에 따라 차등과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PTA는 Common List (6개 그룹, 395개 품목)에 대해 10%에서 70%까지의 양허관세율 및 자국민지분율에 따라 0%에서 100%까지의 관세특례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0:200-210).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선진국에 대한 경제의존의 탈피를 위해 공동roleum을 기울이고 있고, 현지인 자자기업을 우대하고 외국인기업 또는 외국상품에 대해서는 차별대우정책을 펴고있다. 현재 PTA를 공동시장형태로 바꾸는 문제와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와의 통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반면 PTA의 공동시장으로의 전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GDP 8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8)

6. 남부 아프리카 지역

1) 개관: 20세기초부터 식민경영세력의 주도로 경제협력의 초기적 형태가 형성되었 다. 19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Basutoland, Swaziland, Bechuanaland의 3개 High Commission Territories간에 사실상의 판세동맹과 통화동맹이 존재했었고(Peter Robson, 1968:18-19), 이후 1950년대 이후 로데지아(현재 잭바브웨)가 역시 위 국가들과 유사 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항하는 경제협력체의 형태인 SADCC가 나타났으나 정치적 조류의 변화로 이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는 포괄적 움직임 모색으로 나아가고 있다.

2) 남부 아프리카 개발협력회의(SADC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 29)


② 회원국: 1993년 현재 남부아프리카 10개국으로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나미비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앙골라, 잠비아, 잭바브웨, 탄자니아 등이다. 참고로 탄자니아의 경우 지리학상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구분할 때 서쪽으로는 앙골라, 동쪽으로는 모잠비크를 경계지역으로 그 이남 국가를 지칭하기 때문 에 지역적으로는 동부 아프리카에 속하지만 남아프리카 개발협력회의(SADCC)에 참여하고 있다.

③ 설립목적: 루사카선언을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경제의존 탈피, 역내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실질적 지역통합완성, 각종 지역개발계획추진, 역내 국가에 대한 국제적 지원확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④ 주요활동: 1989년까지 SADCC는 63억 달러상당의 490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 으며 이의 대부분이 외국원조의 지원으로 공동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륙국과 항구를 잇는 철도, 항만시설의 보수확장사업의 추진과 도로, 공항, 전기통신


5) 주요기구: 우선 회원국 정상으로 구성된 최고결정기구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 여 1년에 최소한 1회 모이는 ‘정상회의’, 그리고 회원국에서 선임된 대표로 구성되며 각국의 활동사항에 대해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1년에 최소한 2회의 상 모이며 만장일치제로서 운영되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그리고 SADCC의 예산을 관리하고 일반활동의 조정 및 각료회의에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사무국’(Secretariat)등이다.

6) 문제점: SADCC는 회원국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중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였다. 다행히 후자가 최근 인종차별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흑인정권이 들어설것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되었다. 하지만 회원국의 경제구조상 앙골라, 잠비아, 잠비브웨는 중부한 자원보호교육으로 제조 업과 수출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으나, 나머지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자금자족부 분인 단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좌절할 구체 적인 방안의 모색이 급해진다(국회사무처, 1992:233).

2)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보스와나, 테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간 거래는 역내 거래로 간주하여 물품교역이 자유로이며, 회원국 역내관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세를 공통으로 적용한다. 보츠와나의 경우 80년대 중반이후 다이나모드 수

표 1
1990년 아프리카 지역적 경제통합활동도표

출증가와 이 관계동행 참여로 인한 높은 세수입으로 훨자상태를 유지해 왔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2:77).

7 평가

지급까지 살펴본 아프리카대륙의 지역적 경제통합작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본다. 참고로 앞장의 〈표 1〉은 1990년까지의 지역적 경제통합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표 2〉는 주요 경제통합작업의 몇몇 동계를 나타내고 있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2:11).

〈표 2〉 각 경제권별 주요 경제규모 비교 (91년 추정치)

<table>
<thead>
<tr>
<th>주요지표</th>
<th>GDP (US $억)</th>
<th>실질경제 성장율(%)</th>
<th>인구 (백만)</th>
<th>수출 수입 총 (US $백만)</th>
<th>외채 (US $백만)</th>
</tr>
</thead>
<tbody>
<tr>
<td>ECOWAS(16개국)</td>
<td>742.7</td>
<td>1.7</td>
<td>210</td>
<td>20,986</td>
<td>17,022</td>
</tr>
<tr>
<td>PTA(17개국)</td>
<td>482.2</td>
<td>2.3</td>
<td>196</td>
<td>11,097</td>
<td>15,300</td>
</tr>
<tr>
<td>UDEAC(6개국)</td>
<td>410.4</td>
<td>1.0</td>
<td>185</td>
<td>10,472</td>
<td>6,802</td>
</tr>
<tr>
<td>SADCC(10개국)</td>
<td>290.4</td>
<td>3.5</td>
<td>183</td>
<td>10,951</td>
<td>12,698</td>
</tr>
</tbody>
</table>

우선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적 경제통합작업의 역사는 유럽 제국의 아프리카 식민지 영향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할 만큼 상당히 오래된 현상이 다.3) 하지만 탈식민지 이후 그러한 움직임은 소멸, 해체되거나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적 흥미거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탈식민지 이후 본격적인 자생적 움직임에 대해 몇 가지 특색을 지적한다.

1) 균등통제(egalitarian system)에서 비균등통제 체제로의 전환추세

1960년대와 70년대의 초기 아프리카 지역경제통합작업은 관련 국가간에 위계질서 가 없는 균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체제로 시작하였다. 즉 초기에는 어떠한 아프리카 국가도 그가 속해있는 지역적 경제통합작업부서 주도적 역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형태는 몇몇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는 남미나 구 소련중앙


하지만 초기단계를 지나서 점차 현실적으로 상대적인 우월 요소를 갖고 있는 몇몇 나라가 각 지역경제블록의 중심국 내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가 그 좋은 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시장에 사실상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SADCC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나,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등은 사실상 그의 경제권에 속해있다. 다음으로 서부 아프리카지역의 나이지리아는 석유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수입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부 아프리카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ECOWAS의 주도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국가 외에도 코트디부와르는 CEAC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케냐 역시 PTA의 주도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알제리와 모로코가 실세를 다루고 있다.

32) 남아연방공화국의 국토면적은 120만 Km², 인구는 3700만명이며, 국민총생산액은 800억불이다. 아울러 군사적 강대국이다.
33) 나이지리아는 인구 1억2천만명의 산유국으로 아프리카공화국 인구, 자본 동원능력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서아프리카지역에서 나이지리아는 주변 작은 나라인 감비아, 잠디기네와 비교해서 면적상 91배, 인구상 192배에 이르며, 국가총생산면에서는 사이드의 24배에 달한다.
2) 경제통합의 객관적 실적 미흡

달직민자이후 아프리카 신생국들간에 형성된 지역적 경제통합활동은 역내 교역의 증진을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에 그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통합결과의 평가는 실망스럽다. 우선 아프리카 전체의 경제, 즉 상품과 자본의 이동면에서 2/3이상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아니라 다른 제3세계와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들 의 수출품목을 다양화 내지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60년대나 90년대나 마 찬가지로 1차 생산품이 수출의 거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고 공산품은 5% 정도밖에 되 지 아니한다는는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Hugon, 1993:58). 그리고 외채는 80년과 90년 사이에 무려 3배로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아프리카 국가상호간 교 역량은 계속 후퇴하는 추세이다. UNCTAD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5-65년 사이에 약 9%었던 것이 1975-85년에는 6%로 하락하였다. 이상과 같은 통계수치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본유입촉진에서는 동구권에, 수출촉진에서 볼 때는 아시아와 남미국가들에게 뒤처지거나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Hugon, 1993:61). 이렇게 된 이유로는 우선 구조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즉 운송의 여하음, 각 회원국 일반당 국민 소득의 저하, 회원국 경제의 소규모성다. 다음으로 경제정책수행의 불통일이다. 가령 행정규칙의 복잡성, 표준화의 부재, 다양한 통화의 존재로 인한 호환성의 어려움 등이 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그만금 지금까지의 목표로 삼았던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3) 동일 지역에 복수 경제통합활동의 병존


그러면 전체 아프리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정치적 기구인 아프리카탄결기구 (OAU)는 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지역적 경제통합활동 중 어느 하나를 해체시키거나 두나아가서 그 지역에 새로운 경제통합활동의 생을 막을 수 있는 권 한을 갖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첫째, 각 지역적 경제통합있
임은 그 지역에 맞는 조건들 (가령 공동의 식민지문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여건등)을 바탕으로 생성되었고, 푸제, 아프리카 각국은 자국의 주권이전 또는 제약을 기피하여 그들이 속해있는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의 구조를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초과기관인 기구의 개입을 환영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세계, 기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간에는 상호 유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부정적인 정치적 개입으로 간주되기 쉽다. 네째, 각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에는 현실적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각각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은 그 하나하나가 마치 하나의 유럽 또는 하나의 남미를 이루며, 이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아프리카의 경제통합움직임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있다(Boutros-Ghali, 1976:64-65). 따라서 이러한 요소는 바로 이어서 살펴볼 아프리카의 새로운 경제협력움직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Ⅲ. 아프리카의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의 모색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경제동합의 움직임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African Economic Community)의 설립계획이다. 1991년 6월 나이지리아의 아부자(Abuja)에서 열렸던 아프리카탄핵기구(OAU) 정상회의에서 51개 아프리카 정상들은 OAU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될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African Economic Community)에 서명하였다. 총 22장 106조로 구성된 병행한 문서는 모두 6단계로 나뉘어 34년간에 걸쳐 완성될 아프리카 전체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34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주요 배경으로는 우선 1980년에 채택된 Lagos Plan of Action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필요성 인식과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상호간의 교역량이 아프리카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받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장래에 활동하게 될 새로운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 연구자가 보는 세 가지 특색과 주요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집단적 자립개념(continental scale development)의 채택

지금까지의 지역적 경제통합을 담당하는 AEC는 하나의 경제공동체 및 하나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존재해오던 기구들은 모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이익을 추구해왔던 반면, 새로운 탄생하게 될 AEC는 전체적 구도하에 개별적 이익추구를 적절히 행하게 된다. AEC의 목적은 제 4조 1항에 다음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첫째, 경제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과 아프리카 경제통합을 증진시키고 내성적이며 자립적인 발전을 증진시킨다.

둘째, 자립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 동원 및 사용 체제를 뒷받침 전체 규모로 설립한다.

셋째, 아프리카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분야에 있어 협력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회원국간의 평화적 관계를 더욱 길게시키며,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협력에 공헌한다.

넷째, 공동체의 집단적인 형성을 위하여 기존 및 미래의 경제공동체간 정책을 조화하고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제 4조 2항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즉 기존의 지역경제공동체를 강화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없는 곳에는 설립하며, 이러한 경제공동체간의 정책을 조화하고 조성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며, 집단적 자립의 구도속에서 생산의 합작투자계획, 주요생산품의 무역을 증진하고 이 지역내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의 폐지, 관세의 철폐를 추진하며, 농업, 공업, 교통, 통신, 에너지, 친환경, 환경문제, 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체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조화를 도모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단일관세제도를 설정하며, 제3국에 대해 공동무역정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사람, 상품,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권의 권리에 대한 장애요소를 회원국간에 점진적으로 해소하며, 이에 필요한 공동체기금을 형성한다. 그리고 회원국중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외부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끝으로 공동체의 환경보호정책 조세도 추진한다.

2. 현 체제를 비롯으로 하는 점진적 발전전략의 채택

AEC는 기존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급진적으로 통합의 방향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리고 최종 단계에 가서는 AEC를 모든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별 경제통합기구들을 통괄하는 최고의 기구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조약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현존하는 경제통합유동성을 인정하는 부분으로서, 조약 서문의 “이미 있어왔던 각 지역별 및 부문별 경제협력은 고무되어야 하며 아울러 보다 폭넓고 충분한 경제 통합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제 28조(지역경제공동체의 강화)의 “1항:첫번째 단계에서 회원국들은 기존의 지역경제공동체를 강화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역에는 AEC의 점진적 형성을 돕기위해 새로이 설립한다. 2항: AEC의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지역경제공동체등 활동의 조율과 조화를 통하여 회원국들은 지역경제공동체 상호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 88조(AEC와 기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관계)에는 “1항: AEC는 지역경제공동체들의 활동의 조화와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서 형성가능하다. 2항: 회원국은 그들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지역경제공동체의 활동과 AEC 활동을 조화시키고 점진적인 통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지역경제공동체 활동강화의 목적인 결국 장래 있을 AEC의 형성과 활동범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진다.

다음 AEC에게 기존의 지역별 경제통합기구의 상위에 위치하여 이들 활동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조약 제 10조 2항과 제 13조 2항에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가 채택한 결정 및 각료이사회가 제정한 규칙은 비단 회원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공동체에까지도 그 강제적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과 제 88조 2항 단서인 “회원국들은 AEC 설립이 현존하거나 장래에 만들어질 지역경제공동체 활동이 추구할 최종 목표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등이다. 특히 제 88조 3항의 “AEC는 현존하거나 장래 만들어질 지역경제공동체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며 아울러 평가할 것을 위탁받고 있다”라는 규정과 제 93조 2항 “이 조약이 발효하기 이전에 회원국이 기존의 지역경제공동체 외 협력에 이 조약의 내용이 이 조약과 배치될 경우 회원국은 상반되는 내용을 제거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은 명백하게 AEC의 범적 지위, 즉 기존 경제통합활동임에 대한 상위조직으로서의 존재를 발휘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경제통합활동들은 모두가 어떠한 형태로든 AEC에 재통합되어 그 범주내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의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추진은 아프리카 모든 국가의 정치적 의지여야 할 것이다.

3. 구체적 단계별 추진계획의 수립

1990년 조약 제 6조는 공동체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즉 AEC 형성을
6단계로 나누어 34년이 넘지 아니하는 과도기동안 다음과 같이 진행시킨다.

제 1단계(5년): 조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는 기간동안 기존의 지역경제공동체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이러한 공동체가 없는 지역에는 새로 설립한다.

제 2단계(8년): 제 1단계 이후의 기간으로 각 지역경제공동체 수준에서 취하는 조치를 연급하고 있다. 즉 이 조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안정시키고, 각 지역경제공동체 상호간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계획표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이들 무역, 농업, 통화, 재정, 운송과 통신, 산업 및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과 대륙차원에서 분야별 통합을 강화시킨다.

제 3단계(10년): 제 2단계 이후의 기간으로 각 지역경제공동체의 수준에서 조치를 취한다. 특허 주된 목표는 공동체 상호간의 교역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계획표에 따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설치함과 동시에 대외적 단일관세제도를 체결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설치하는데 있다.

제 4단계(2년): 제 3단계 이후의 기간으로 여러 지역경제공동체간에 실시된 관세, 비관세 장벽을 대륙차원의 관세동맹을 설립하기 위해 조화를 추구한다.

제 5단계(4년): 제 4단계 이후의 기간으로 아프리카 경제공동시장을 설립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농업, 운송과 통신, 산업, 에너지와 과학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채택한다. 둘째, 통화, 재정 및 조세정책을 조화시킨다. 세째, 사람의 자유 이동 및 거주의 권리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넷째, 공동체 자체의 재무를 확보한다.

제 6단계(5년): 제 5단계 이후의 마지막 기간으로 모든 부문, 즉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공동시장의 구조를 구축하려고 강화합과 동시에 아프리카 중앙은행(African Central Bank)의 설립, 단일 아프리카 화폐단위 실시, 아프리카 통화동맹(African Monetary Union)의 설립 및 최초의 범아프리카 의회 선거를 실시한다.

이러한 구체적이고도 단계적인 계획표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을 위한 활동의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하여 주는 효과를 갖는다.

4. 주요 기관과 그의 특색

AEC는 기존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들이 갖고있던 구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Assembl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와 실체적으로 공동체의 기능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여러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가로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통합의 마지막 6번째 단계에서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범아프리카의회(Pan African parliament)’,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조약의 적응과 해석상의 분쟁과 그에 조약에 의거하여 부탁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와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특별기술분과위원회(specialized technical committees)’ 등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기존의 통합활동을 내부의 기관에 비교해 볼 때 AEC 기관의 결정체택방식의 환화와 그 법적 효과의 강화이다. 우선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의 결정은 총의(consensus)를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회원국 전체 2/3 찬성으로 하고 있다.(조약 제 10조 4항) 아울러 이사회는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의 승인하에 강제력을 있는 규칙(regulation)을 채택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 역시 총의 또는 2/3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이는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들이 일률적으로 채택하던 만장일치의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채택된 결정과 규칙의 효력 역시 상당히 강화된다.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에서 채택한 결정은 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회원국과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다.(조약 제 10조 3항) 그리고 이사회가 채택하는 규칙 역시 그의 효력은 비단 회원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공동체까지 미치도록 되어있다.(조약 13조)

IV. 종합적 평가 및 결론

개발도상국들이 지리적 인접성, 공동된 역사,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결성한 지역적 통합은 적응이 많지만 무역자유화의 여건미비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35 아프리카지역 역시 이러한 개도국의 경제통합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경제통합운동의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경제통합체의 소멸과 새로운 통합체로의 재결합 응적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Robson, 1983:2).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35) 임진대, 1993:125; Michel Virally "Les relations entre organisations régionales et organisations universelles", in Régionalisme et universalisme dans le droit international contemporain, 1976, pp.147-165. 한편 지리적 인접성이 과연 지역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 경제통합을목표의 부진한 이유


2) 회원국 개별 경제체제의 고립성과 정체성: 통합작업의 부진한 두번째 이유로서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가 상이하고 또 각국간 대내외 경제정책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산업연구원, 1989:16).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외국인의립지 경험을 하였다는 사실은 지역적 경제통합작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각국은 독립후에 자국 영토내에서 국가적 적극적인 개입하에 자율적인 경제체제 및 그 영역을 형성해 왔다. 이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경제정책상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성과 주변 국가상호관계에 있어서의 경제적 독립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경제통합 내지 국제화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국가기업정보의 완화, 사회화의 단행, 그리고 법적-규제적 제조정책 국 내 기준 정책에 많은 수정을 가해야 하나 그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 으로 발해주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회원국 상호간 교역량 비중의 작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볼 때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을 직면하기 극복해야 할 다음과 같은 4가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판세 및 비판세장벽의 존재: 이는 지역적 경제협력 및 통합의 정신과 가장 동떨어진것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국가들은 인접국으로부터 자국 국내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불어린이 영어권 국가간의 불화는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② 운송과 통신의 어려움: 이는 아프리카의 1차 생산품과 공산품을 빠른 시일내에 신속히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가격경쟁에서 우위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준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다.

③ 생산요인의 부족: 노동력의 절절 열악성, 숙련도의 문제, 그리고 원료 및 전자의 부족과 그에 따른 부수적 비용증대 등에 관련된다.

④ 금융문제: 아프리카에는 향전이 가능한 화폐가 그렇기 못한 류가 있다. 가령 서부 아프리카지역만 하더라도 전자는 아프리카제정공동체통화(CFA)와 라이베리아 달러인 반면, 후자에 드는 통화로는 나이지리아, 가나, 감비아, 시에라리온, 기니, 카포베르데, 모리타니아등의 국내화폐등 거의 대다수가 이에 속한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거래는 통상 관련국의 중앙은행을 경로로 행하여지고 이는 지불결제 및 대체에 있어서 업무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빠른 움직이 절대 필요한 대외무역과 역행하고 있다. (니제르에서 나이지리아로의 수출대금지불결제에 통상 12달이 걸린다 !)(Igue, 1994:72)

2. 경제통합을 위한 조건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을 함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국내 경제규모의 협소, 국민의 습적 열세를 공통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심하게 분열상태를 보이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화와 접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있다. 30)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로 여겨져 왔던 아프리카 전체 경제통합단계 시간표와 각종 난점을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의 미비는 새로운 출범한 AEC가 치유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여면 학자는 비록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을 아직했지만 그들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기술상의 난관을 개발했으며, 아프리카의 정치적 기류가 통합을 쉽게 낙관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부 경제협력단체 들이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을 실제로 진행되도록 원조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보고 있다(Robson, 1983: 3; 1985: 603-22, 특히 619 이하 참조). 이 외 유사한 입장으로 OECD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1991년 보고서에서 경제협력의 지속적 추진, 내전의 정정, 그리고 정치개혁등 3가지를 아프리카 경제의 잠재적 회생을 돕는 요소로 보고 있다. 38)

결국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적 정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경제통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이익의 균등한 배분제도와 남미지역에서는 불 수 없는 아프리카 특유의 요소인 과기 식민지세력에 따라 달라져버린 문화적 배경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결국 아프리카 대륙 각국의 정치적 적극성으로서 귀결될 것이다(Robson, 1968: 301). 그리고 경제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냄 수 있는 원천과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37) 어떤 학자는 경제통합의 추구는 이기심과 협동의 합의관계이며, 아프리카의 경우 양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Green & Krishna, 1967: 4).

38) OECD, 1991: 23-25. 최근 잉글랜드, 모잠비크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계속된 내전이 진행됨으로써 이 세 지역에서 대규모로 일어난 난민유출사태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및 포기와 희생개신의 도래로 기존의 SADCC와 PTA 회원국과의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아울러 보스와나, 모리 타니아 그리고 세네갈에서는 민주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베넹, 카보베르데는 새로이 선출된 정부가 들어섰다. 나세르와 다른 나라들 역시 국민의회(national conferences)라는 정치개혁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결정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경제통합의 규모결정'이란 바로 어떤 움직임을 단순한 지역적 경제협력차원에서 미루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발전된 형태인 정치 통합으로 가지 이끌고 갈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적절한 통합전략의 마련을 일컫는다.
1. 1989년 2월 17일 마라케시에서 체결된 아랍동맹설립조약(Traité portant création de l'Union du Maghreb Arabe) 요지39)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아 정부수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조: 명칭 - Union du Maghreb arabe
2조: 동맹의 설립취지
   - 회원국과 그들 국민간의 인적 유대감의 강화
   - 사회의 발전과 복지의 구현 및 권리보호
   - 형평과 정의에 바탕을 둔 평화의 유지
   -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정책 이행
   - 회원국간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상품 및 자본의 자유이동의 실현을 위한 점진적 노력
3조: 2조에서 언급한 공동정책이란
   - 국제분야에서는 회원국간 대화를 바탕으로 한 협력방안 모색
   - 방위분야에서는 회원국의 독립성 유지
   - 경제분야에서는 회원국의 산업, 농업, 사회적 발달을 실현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특히 공동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절한 일반·특수 프로그램을 준비한 다.
   - 문화분야에서는 (생략)
4조: 회원국의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 최고기관으로 의장은 6개월마다 바뀜
5조: 이사회의 회기 - 정기회의는 매 6개월마다 개최하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6조: 이사회의 결정방식 - 단장일치
7조: 장관회의 - 필요한 경우 회동
8조: 외무장관회의 - 이사회 회기준비 및 각종 위원회와 분야별 장관급 위원회의 작 업결과 검토
9조: 위원회의 구성 - 각 회원국에서 한명씩 선임하여 설립되는 위원회는 동맹의 관 련 업무를 전담하며, 그의 작업결과를 외무장관회의에 제출한다.

10조: 분야별 장관급 위원회의 구성 - 이사회의 직속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1조: 사무총장 - 각 회원국에서 선임된 대표로 구성되며, 임부수행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나라에서 한다. 경비는 의장국에서 부담한다.
12조: 자문이사회의 구성 - 각 회원국에서 선임된 10명씩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매년 회기를 가지며,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자문이사회의 임무는 이사회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며, 그의 동맹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유익한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13조: 사법기관의 구성 - 각 회원국에서 선임된 2명씩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6 년으로 연임가능하다. 3년마다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의장은 1년 임기로 선출된다. 사법기관은 동맹조리조약 및 동맹내에서 체결되는 각종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된 소송과 이사례에 의해 맡겨진 소송, 일 회원국에 제기한 소송 및 인정한 경우 동맹의 기관에 의해 제기된 소송을 처리한다. 사법기관의 판결은 강제적 및 확정적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이사례에서 부탁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다. 소재지 와 예산등은 이사례가 결정한다.
14조: 일 회원국에 대한 청탁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청탁으로 간주된다.
15조: 일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보전, 안보 및 정치체계에 위협될 수도 있는 모든 행위 또는 기구의 설치를 그의 영토내에서 행하여는 아니된다. 아울러 회원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존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다른 모든 군사적, 정치적 동맹에 가입치 아니한다.
16조: 동맹조리조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제 3국과의 조약체결권 명시
17조: 다른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국가의 동맹조리조약 문호개방
18조: 개정 - 일 회원국의 제안에 따라 다른 모든 회원국의 합의하에 개정
19조: 발효 - 모든 회원국의 국내적 절차를 밟은 후 발효

2. 1991년 채택된 OAU산하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설립조약 요지

제 1장: 개념정의 (1조)
제 2장: 설립취지, 원칙, 목표와 이행방법 (2조 - 6조)
제 3장: 공동체의 기관 (7조 - 27조)

7조: 기관의 개관
8~10조: 국가와 정부수반총회
11~13조: 각료이사회
14조: 범아프리카의회
15~17조: 경제사회위원회
18~20조: 사법제관소
21~24조: 사무국
25~27조: 전문기술분과위원회
제 4장: 지역경제공동체 (28조)
  28조: 지역경제공동체의 활성화 방안모색
제 5장: 관세동맹과 무역의 자유화 (29조 - 42조)
제 6장: 사람의 자유이동과 기후 및 환사설립의 권리 (43조)
제 7장: 통화, 재정 및 지불 (44조 - 45조)
제 8장: 서양과 농업 (46조 - 47조)
제 9장: 산업, 과학, 기술, 탐사, 국내자원 및 환경 (48조 - 60조)
제 10장: 운송, 통신 및 관광 (61조 - 66조)
제 11장: 표준화와 도량체제 (67조)
제 12장: 교육, 혼란 및 문화 (68조 - 70조)
제 13장: 인적 자원, 사회문제, 보건 및 인구 (71조-76조)
제 14장: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및 조화 (77조)
제 15장: 일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규정 (78조 - 79조)
제 16장: 연대, 개발 및 보상기금 (80조 - 81조)
제 17장: 재정에 관련된 규정 (82조 - 86조)
제 18장: 분쟁의 해결 (87조)
제 19장: 공동체와 지역경제공동체, 지역기구, 아프리카내 비정부간기구 및 기타 사회 경제기구와의 관계 (88조 - 91조)
제 20장: 공동체와 제 3국 또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92조)
제 21장: 회원국과 제 3국, 지역 및 하부지역기구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관계 (93조 - 95조)
제 22장: 기타 조항 (96조 - 106조)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국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산업연구원
1989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추이와 우리의 대응", 41p.
김기환
박완락
박완락, 정영태
1991 "서아프리카 지역통합", 『아프리카연구』, 제 6호, pp.5-69.
심의섭
1990『아프리카 경제론』, 436p.
임진대
1993 "세계경제의 지역블랙화 경향과 아시아-태평양 비역블랙화 가능성",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월보, 10월호, pp.114-133.
Ajulo(S.B)
Belaid(S)
Balta(P)
Boutros-Ghali (B)

1976 “le système régional africain”, in Régionalisme et universalisme dans le droit international contemporain, pp.61-72.
Coussy (J) & Hugon (Ph):

Crum (D.L)

D. Carreau, Th. Flory & P. Juillard
1990 Droit international économique, 3ème ed., p.725.

Green (R.H) & Krishna (K.G.V)

Hugon (Ph)

Igue (J.O)

Johnson (O.E.G)

Landdau (A)

Ngom-Ngoudi

OECD

Okolo (J.E)
1989 “ECOWAS: Regional cooperation regime”, in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32, pp.111-137.
Achievements, Problems and Prospects of Afric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Movement

Ki-Gab Park

After independence, African States entered into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arrangements inter se. The problem of assessing the value of existing arrangements for economic integration in Africa is difficult. This article examines, first of all,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existing Afric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movement by division of Africa into five (5) regions namely North Africa, West Africa, Central Africa, East Africa and southern Africa. And we found out that:

1) certain States play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each movement.
2) even though the trend towards economic integration is common today on the African scene, the record of African regional integration has not been outstandingly successful.
3) the polarisation of movements in the same region seems to create negative effects.

Secondly, this article tries to foresee the prospect of new African Economic Community(AEC) established in 1991 by OAU. And we found out its principal
characteristics:

1) The Community shall be established gradually in order to increase economic self-reliance and promote and endogenous and self-sustained development of Africa.

2) The Community shall be established in six (6) stages following the time-table and justify a larger and fuller economic integration of Africa in future.

In the part of General Conclusion, we consider what are reasons for the negative experience with regional cooperation in Africa and what is realistically suggested for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regional cooperation to overcoming the African crisis. And those are: set out the proper strategy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lanning, involve any workable integration programme; emphasises the need to promote a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etc. No doubt the really crucial factors in the progress of integration are the political will to integrate and a willingness to compromise.

박기갑,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소: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번지
Tel: (0361) 58-1344, Fax: (0361) 56-4133